

이슈

2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092호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왼쪽)과 주연 송강호가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고 27일 오후 뜨거운 환대 속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인천공항 | 김동원 기자 won@donga.com

해외 영화인들 먼저 다가와 축하... 인기 실감

가는 곳마다 환호·카메라 세례 러시 미국배우 “송강호와 영화 찍고 싶다” 동등한 승객 “가문의 영광” 인증샷 봉·송, 함께 탄 탑승객과 기념촬영

호는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어김없는 축하와 환호를 받았다. 시작은 니스공항에서부터다. 이날 칸 입대와 니스 공항 주변은 영화제 폐막 뒤 돌아가는 이들로 상당히 붐볐다. 공항에 모여든 이들은 봉 감독과 송강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영화관계자들이었다. 인사는 이후 환승지인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으로까지 이어졌다.

오전 4시 인천으로 향하는 KE902편에 탑승할 때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최대한 주위의 승객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탑승 종료 시간이 임박해서야 조용히 탑승했다. 이들과 여정을 함께 한 가족들도 같은 비행기를 탔다. 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넨 이들은 승무원들이었다. 이들은 반색하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봉 감독과 송강호는 가벼운 눈인사로 화답했다. 일부 승객들은 세

계적인 스타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 휴대 전화를 들었지만, ‘기생충’ 스태프가 주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찍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인천 도착...탑승객들 일제히 사진 촬영

오후 2시50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직후에도 두 사람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애초 입국장 밖 게이트에서 약식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항 출입기자들은 이보다 먼저 입국장 내부에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공사 쪽에서 ‘기생충’ 제작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잠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게 답했다. 한국에 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 봉 감독은 “집에 가고 싶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보고

싶고, 충무김밥도 먹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두 사람이 입국 게이트 밖으로 나오자 취재진과 팬, 시민 등 200여 명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한 승객은 SNS를 통해 “(봉 감독 등과)같은 비행기에 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가까이에서 얼굴을 본 것만으로 가문의 영광”이라며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기 바빴다.

이는 이제 세계적인 이슈를 몰고 다니게 된 스타들의 등장이기도 했다. 할리우드 영화 ‘트와일라잇’에 출연한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비슷한 시간에 입국해 뒤따라 나왔지만 누구도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도 이를 말해준다. 크리스틴 스투어트는 한 패션 브랜드 프로모션 참석차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순위	선수	통산상금(달러)	통산상금(원)
1위	타이거 우즈	1억1830만9570	1400억4303만
2위	필 미켈슨	9048만6354	1071억869만
3위	비제이 싱	7121만6128	842억9853만
10위	에니 엘스	4926만4449	583억1432만
11위	로리 매킬로이	4626만17133	547억6640만
12위	제이슨 데이	4534만8933	536억7953만
18위	조던 스피스	3923만8510	464억4662만
25위	최경주	3248만2911	384억5002만
33위	케빈 나	3015만6814	356억9662만
40위	저스틴 토마스	2793만16848	330억6884만

※ 환율(1달러=1183.7원)은 27일(한국시간) 기준

캐디에 1억짜리 후 케빈 나, 통 큰 선물

▶1면에서 이어집니다

케빈 나 이후 다시 7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해 7월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 통산 2승째를 올렸다. 비록 PGA 투어 생활 15년 동안 우승은 2회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작성하면서 2부투어로 내려가지 않은 이가바로 케빈 나였다.

●캐디와 가족에게 건넨 뜻 깊은 선물

통산 3번째 우승은 어느 때보다 순탄하게 완성됐다. 2타 차이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뒤 전반 2번 홀(파4) 짧은 버디 퍼트와 4번 홀(파3) 장거리 버디 퍼트를 연달아 성공시키고 격차를 벌렸다.

이후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숨을 고른 케빈 나가 우승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은 파4 14번 홀에서였다. 토니 파나우(30·미국)가 2타 차이로 따라붙는 상황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컵으로 집어넣고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반면 파나우는 비슷한 시각 16번 홀(파3)에서 보기를 기록하는 바람에 4타 차이로 멀어졌고, 케빈 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으면서 우승을 자축했다.

이번 우승으로 케빈 나 생애 총상금 3015만6814 달러를 기록해 PGA 투어 역대 통산상금 순위에서 33위로 올라섰다. 부문 1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1억1830만9570 달러로 굳게 지키는 가운데 필 미켈슨(49·미국)이 2위(9048만6354), 비제이 싱(56·피지)이 3위(7121만6128)로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 혹은 한국계 선수로는 최경주(49·SK탈레콤)가 가장 높은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케빈 나 생애 이번 우승 감각을 자신의 동반자인 캐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눴다. 캐디인 케니 합스에게는 1억 원을 호가하는 ‘우승 부상’ 빈티지 고급차(1973년형 다지 쉐린저)를 선물했고, 만삭의 몸인 아내와 3살배기 딸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우승 기자회견에서 케빈 나 생애 “골프는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도 18번 홀에서 티샷을 퍼어웨이로 안착시키고, 세컨 샷을 그린 위로 올렸을 때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우승 순간을 되돌아봤다. 이어 “평소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후배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줄 때도 있다. 나 역시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돼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 조언을 건네겠다”며 고국 선수들을 향한 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금 75%·은 25%...디자이너 7명 40시간 수작업

황금종려상 트로피 이렇게 제작됐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으면서 그 트로피에 대한 호기심도 일고 있다. 공정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다.

●누가 디자인하나?

트로피 제작에는 스위스 보석 브랜드 쇼파드에 소속된 7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트로피를 구성하는 18cm의 줄기와 19개의 잎 모양은 하나씩 주조한 후 조립한다. 재질은 금 75%, 은 25%로 구성된다. 받침대인 크리스탈은 3kg의 원석을 연마해 완성한다. 모든 재료는 공정 거래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받는다.

디자이너들이 40시간에 걸쳐 수작업으로 완성한 트로피는 비밀리에 보관돼 영화

제 폐막식 몇 시간 전 식당인 칸 팔레 데 페스티벌의 대극장 튀미에르로 옮겨져 마침내 수상자의 품에 안긴다.

●그 역사는?

첫 황금종려상 주인공은 1955년 제8회 때 델버트 만 감독과 영화 ‘마티(Marty)’였다. 이후 1975년부터 ‘황금종려상’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트로피는 당시 유명한 보석세공사 루이엔 라공이 디자인했다. 종려나무의 잎과 줄기 아래 끝 쪽이 하트 모양을 이루는 형태였다. 받침대는 조각가 세바스티앙이 조각했다. 1980년대 초에는 받침대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다 1984년 피라미드 형태로 바꿨다.

1992년부터 티에리 드 부르크네가 디자인해 손수 깎은 크리스탈 소재 받침대를 사용했다. 이후 1998년 쇼파드의 캐롤라



인 슈펠레가 수정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70회

영화제를 기념해 다이아몬드를 잎과 줄기에 별 모양으로 박아넣은 새 디자인을 특별 제작해 화제가 됐다.

●수상 트로피는 누가 보관하나?

황금종려상은 최고 작품과 연출자인 감독에게 주는 것이니만큼 이번 영화제 황금종려상 트로피는 봉준호 감독이 소유한다.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봉 감독이 갖는다”면서 “영화제가 트로피와 별도로 수여하는 상장이 있다. 이를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배우와 스태프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칸에서부터 서울까지 운반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기생충’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직원이다. 이 직원은 ‘안전운반’의 임무를 받고 다른 업무에서 열외돼 오직 트로피만 챙겼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가 잘 간수하지 못해 아주 잘 하는 분이 맡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손흥민 뽑은 벤투 “UCL에 집중하라고 했다”

벤투호 6월 A매치 엔트리 공개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강화훈련을 시작한다.

“이정협 경기력 대표팀에 부합”

K리거 김태환·손준호도 승선

6월 국내 A매치 시리즈에 나설 축구국가대표팀 엔트리(25명)가 공개됐다.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축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전(6월7일·부산아시아드경기장)~이란전(6월11일·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이어질 두 차례 평가전에 출전할 태극전사들을 발표했다.

9월 시작될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축구는 아시아 강호들과의 스퍼링을 통해 현재의 전력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다. 대표팀은 내달 3일

●황태자의 컴백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이정협(28·부산 아이파크)이다.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독일)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황태자’로 불렸다. 그러나 동행은 길지 않았다. A매치 19경기에서 5골을 몰아친 이정협은 2017년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AFF) E-1 챔피언십을 끝으로 잊혀졌다.

2019시즌은 달랐다. K리그2 9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K리그1 복귀를 꿈꾸는 부산의 상승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이정협은 대표팀의 경기력과 스타일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단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빌드업을 벤투 감독은 강조해왔다.

●에이스는 계속

많은 이들이 대표팀 ‘캡틴’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을 축음하게 바라본다. ‘혹사 논란’을 가져올 만큼 손흥민의 2018~2019시즌은 참으로 길다. 대부분 유럽 시즌이 막을 내렸으나 그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파이널에 진출해 가장 긴 여정을 보내게 됐다.

지난해 여름, 프리시즌도 건너뛴 손흥민이다. 러시아월드컵에 이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 출격했고, A매치 평가전과 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 나섰다. 소속 팀과 국가대표, 연명별 대표팀까지 그의 활동반경은 넓었다. 하지만 벤투 감독에게는 여유가 없다. “손흥민과 연락을 했다. UCL 파이널은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다. 대표팀은 있고 UCL 결승에 집중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한 벤투 감독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대표팀 감독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건 당연하다”고 전했다.

●파격은 없다

3월과 비교해 이청용(31·보훈), 지동원(28·마인츠), 이강인(18·발렌시아CF) 등 7명이 빠졌지만 새 얼굴은 3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깜짝 승선도 없었다. 굳이 꼽자면 김태환(30·울산 현대)이 있으나 이미 A매치 5회를 뛰었으니 신선했음은 떨어진다. 이정협이나 손준호(27·전북 현대)도 마찬가지다.

K리그 멤버들의 숫자도 많지 않다. 25명 가운데 10명에 불과하다. 물론 대부분이 익숙한 얼굴이다. 실제로 벤투 감독은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철학과 방향이 주어지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타입이다. 과거 모국 포르투갈을 이끌었을 때도 그랬다.

다만 정답은 없다. 벤투 감독은 항상 시간에 쫓긴다. 장기소집도 없다. 단기간 손발을 맞춰 코앞의 경기에 대비하는 입장이다. 그는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9월에도 큰 변화는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